베이징올림픽 D-93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한국김치 모델…전통음식 세계화

오리구이 등 상품이름 영문으로

올림픽과 김치. 얼핏 둘은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김치가 중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뜨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뭘까?

중국 기업인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올림픽 전략은 딱 한가지, '전통으로 승부하기'다. 어차피 하이테크는 서방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 콘텐츠가 풍부한 국가 아닌가, 이를 활용하면 대박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면 뭐하나. 꿸 기술이 필수다. 이들이 주목한 해답은 바로 '김치'다. 김치야 말로 '가장 흔한 전통'에서 '가장 귀한 달러'를 벌어들인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가 아닌가.

중국인들은 즉시 한국으로 달려가 김치 전문가를 찾았다. 한국 김치협회 박건영 회장은 이들에게 서울 올림픽 당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장 주변이나 서울 한복판에 김치 전시대를 마련해 외국인들에게 무제한의 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김치 홍보 포스터도 붙였다. 여행객들이 올림픽 관련 상품을 2개 이상 구입할 경우 김치 한 포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김치의 성공 스토리는 중국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김치 영감'을 현실로 바꾼 현장을 보자.

우선 '라오쯔하오'(전통 기업들)들이 영어로 단장했다. 전통의 현대화다. 이들은 상품 이름 전체를 영어로 바꿨다. 오랜 고집을 버린 것이다.

오리구이 전문점 '취앤쥐더'(全聚德)는 'Quanjude Peking Roast Duck-Since 1864'란 이름을 병기했다. 중의약 전문점 '퉁런탕'(同仁堂)도 'Tongrentang Chinese Medicine-Since 1669'이란 영어 이름을 갖게 됐다.

광고에도 극성이다. 2008년 새해 들어 첫날부터 베이징 지하철 1호선이 확 바뀌었다. 베이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의 사진이 전동차의 새 옷이 됐기 때문이다.

신상품 개발도 활발하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겨냥한 작품이다. 베이징을 대표하는 서민주(酒) '얼궈토우'(二鍋頭)를 생산하는 홍싱(紅星)기업은 서구인들의 취향을 고려해 42도의 맑은 향이 나는 술을 개발했다. 오리구이 전문점 '피엔이팡'(便宜坊)은 동남아 인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기름진 오리구이를 내놨다.

라오쯔하오에게 올림픽은 사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건국(1949년) 당시 1만 6천여 개였던 라오쯔하오가 현재는 1천600여 개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세월에 밀린 것이다. 올림픽을 타고 날아오르지 못하면 90% 정도의 라오쯔하오는 존립 기반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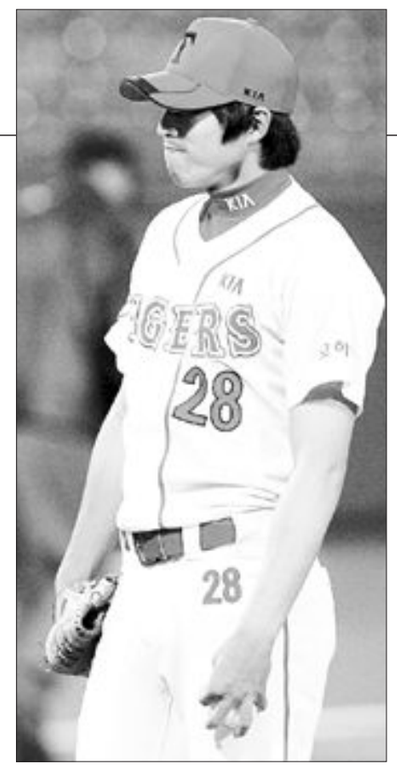
중국 기업들이 김치같은 세계적인 민족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축제 끝에 허탈하게 하늘만 쳐다보게 될 것인가, 100여 일이 지나면 중국인들은 그 해답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jrjkrccm@paran.com

삼성PAVV 프로야구

KIA 전병두 등 2명, SK 3명과 트레이드

좌완 전병두를 왜?…팬들 뿔났다



"타이거즈 팬들 뿔났다."

KIA 타이거즈 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좀처럼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팀 성적과 더불어 지난 4일 단행된 좌완 전병두〈사진〉의 트레이드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IA는 지난 4일 밤 늦게 SK와의 2 : 3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전병두(24·투수)·김연훈(24·내야수)을 내주고 채종범(31·외야수)·이성우(27·포수)·김형철(28·내야수)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KIA 홈페이지에는 '트레이드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지난달 30일 두산과의 잠실경기에서 6-7 치욕의 역전패를 당한 이후 불거졌던 조범현 감독 사퇴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졌다.

반발의 핵심은 바로 전병두다. 좌완으로 150㎞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뿌린다는 점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로 참가해

구단 '탈꼴찌 전략' 주장 불구

영입 선수들 특출한 기량 없어

트레이드 철회 등 항의 빗발쳐

군면제를 받았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하지만 조 감독은 전병두를 트레이드카드로 사용했다. 기대주이긴 하지만 제구력에 문제가 있고, 탈꼴찌가 발등의 불이 된 만큼 트레이드로 우타 우익수와 포수 부재에 따른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보겠다는 계산이다. .

2005년 KIA는 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역대 최고 용병으로 꼽히는 리오스와 내야수 김주호를 내주면서까지 전병두를 데려왔다. 2006년 투수 명조련사 선동렬 감독의 극찬 속에 WBC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지만, 팬들의 각별한 애정에 비해 전병두의 성장 속도는 더디었다.

결국 전병두는 두산, KIA에 이어 SK 유니폼을 입게 됐다. KIA 마운드의 아킬레스건은 좌완투수다. 잠재력이 뛰어난 좌완자원들은 몇 년째 유망주 상태다. 전병두가 환골탈태해 공포의 좌완으로 거듭난다면 KIA는 스스로 지도력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게 되는 셈이다.

트레이드 다음 날인 5일 선발 출전한 채종범은 이번 트레이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키를 쥐고 있다. 우타자 이종범도 주전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두 종범'의 대결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첫 대결에서 채종범은 4타수 1안타 1삼진, 병살타도 하나 기록했다. 이종범은 대타로 나와 1타점 2루타를 기록하며 우위에 섰지만 타율이 0.232에 머물고 있다.

재능있는 포수 자원으로 언급된 이성우는 아직 1군 무대를 밟아 본 적이 없는 중고 신인이고, 김형철은 107경기에 나와 통산타율이 0.167에 불과하다.

조범현 감독이 내민 '위험한 카드'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병규 한방에 '철벽' 후지카와 붕괴"

4일 한신전 끝내기 홈런 놓고

일본 야구계 놀란 표정 역력

철벽이라고 믿었던 후지카와 규지(28·한신 타이거스)가 이병규(34·주니치 드래곤스·사진)에게 끝내기 홈런을 두들겨 맞은 걸 두고 일본 야구계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니치는 6일 호시노 센이치 야구대표팀 감독이 "(이병규가) 후지카와의 포크볼을 쳐내 끝내기 홈런을 만든 것은 대단하다"며 한국 야구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병규가 지난 4일 나고야돔에서 열린 주니치-한신전에서 2-2로 맞선 연장 10회말 후지카와의 바깥쪽 공을 밀어쳐 끝내기 솔로포를 뽑아내자 호시노 감독이 다음 날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호시노 감독은 또 "이병규는 낮은 볼만 잘 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후지카와 등 일본 야구국가대표 후보들에게 외국인 선수와 대결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이겨놓고 기다리자"

오늘 광양서 호주 빅토리 상대

AFC 챔피언스 조별리그 5차전

8강 자력 진출 '물건너 간 상태'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위기 속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지난 해 FA컵 우승 팀 전남은 7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 멜버른 빅토리FC(호주)를 불러들여 G조 5차전을 치른다.

조별리그에서 1승1무2패(승점 4)를 거둔 전남은 조 3위로 처져 있어 자력으로 8강 진출은 불가능하다. 전남이 멜버른을 꺾어도 G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감바 오사카(일본·3승1무)가 같은 날 촌부리 FC(태국)와 비기기만 해도 그대로 8강 탈락이 확정된다.

멜버른은 1차전에서 전남에 0-2 패배를 안긴 팀이지만 현재 조 최하위에 머물며 일찌감치 8강행이 물 건너 가 이번 원정 경기에 2군을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남이 이번 홈에서 1승 챙기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8강행이 좌절된 포항 스틸러스는 호주로 원정을 떠나 같은 날 오후 7시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FC와 E조 5차전을 벌인다. 포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애들레이드와 맞붙어 0-2로 패했다.

스포츠캐스터

7일(수)

▲07/08 NBA 플레이오프(11 : 30·MBC ESPN)

▲KBS 스포츠 베이징 올림픽 유도국가대표 최종선발전(14 : 50·KBS2)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한신〉(17 : 45·SBS스포츠)

▲2008 삼성PAVV 프로야구〈두산 : 우리〉(18 : 00·KBS N SPORTS)〈롯데 : 한화〉(18 : 20·MBC ESPN)〈LG : SK〉(18 : 20·X-PORTS)〈삼성 : KIA〉(21 : 00·SBS스포츠)

8일(목)

▲07/0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R.마드리드 : 바르셀로나〉(05 : 00·KBS N SPORTS)

▲2008 메이저리그〈클리브랜드 : 뉴욕Y〉(07 : 56·XPORTS)